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NAXOS
www.naxos.com

8.557404

라이넥케: 하프협주곡, 플루트협주곡

패트릭 갈르와(플루트, 지휘)
파브리스 피에르(하프, 지휘)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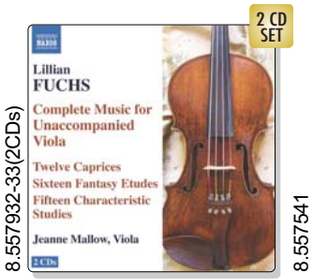
칼 라이넥케는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자, 지휘자, 피아니스트 등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음악가로 작곡가로도 3편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오페라, 협주곡 등등의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양식적으로 멘델스존이나 슈만의 그것을 연상시키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협주곡 역시 유려한 선율과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위로 독주자들의 화려한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로맨틱 협주곡의 전형을 보여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상급 플루트연주자 패트릭 갈르와와 리옹 국립음악원 교수인 파브리스 피에르가 지휘와 독주를 번갈아 맡으며 최상의 연주를 들려준다.

8.557760

타케미츠: 영혼의 정원, 고독의 소리, 현을 위한 세 개의 영화음악, 꿈꾸는 시간, 오각정원에 내려온 새들

마린 알소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대한 일본 작곡가 토루 타케미츠의 사망 10주기 기념음반. 그는 서구권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 음악계에 동양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었다. 본 음반에는 20대 작품인 '고독의 소리'에서부터 사망 2년전에 완성된 '영혼의 정원', 그리고 작곡가의 가장 인기작품인 '오각 정원에 내려온 새 떼' 까지 대표적인 관현악곡들이 엄선되었다. 현존 최고의 여류 지휘자이자 현대음악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왔던 마린 알소프가 지휘를 맡았으니 음반에 대한 신뢰감은 한층 커진다.



8.557932-33(2CDs)

릴리안 퍼츠: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음악들

(16개의 환상연습곡,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전원소나타, 15개의 성격적 연습곡, 12개의 카프리스)

진 말로우(비올라)

명 바이올리니스트 조셉 퍼츠의 여동생이었던 릴리안 퍼츠는 '비올라의 퍼스트 레이디'라 불리며 프림로즈와 더불어 이 만년조연악기를 음악계의 당당한 주역으로 각광받게끔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연주가로서의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악기를 위한 무반주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비올라가 지닌 중저음의 매력이 한껏 강조된 이 작품들은 교습용 음악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감상적인 측면에서도 큰 만족감을 준다. 연주를 맡은 진 말로우는 바로 퍼츠의 손녀. 할머니의 악기였던 가스파로 다 살로를 이번 녹음에 사용하였다.

8.557541

바르나바스 켈레멘 바이올린 리사이틀

(라벨: 치간느,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바르톡: 루마니아 민속춤곡, 랩소디 1,2번, 리스트: 로망스 외)

바르나바스 켈레멘(바이올린)
페터 나지(피아노)

2002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의 금메달리스트인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 바르나바스 켈레멘의 낙소스 데뷔음반. 수상이후 여러 메이저 무대에서 행해진 콘서트와 리사이틀을 통해 주목할 만한 젊은 연주자로 구미 음악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는 2005년에는 모국의 리스트 음악원의 바이올린 교수로 임명되면서 교육자로서도 맹활약중이다. 본 음반에는 그의 출중한 기교가 맘껏 발휘된 대표적인 인기 쇼피스들인 치고이네르바이젠과 치간느 외에도 조국의 작곡가들인 바르톡과 리스트의 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57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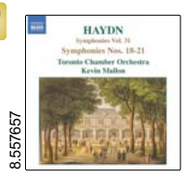
시모네 람스마 바이올린 리사이틀 (엘가: 바이올린소나타, 로망스, 사랑의 인사, 밤 인사, 아침인사 외)

시모네 람스마(바이올린)
유리에 미우라(피아노)

8.557574-75(2CDs)

헨델: 오라토리오 〈솔로몬〉

에바 볼락(솔로몬),
엘리자베스 솔(왕비),
니콜라 베미스(시바의 여왕),
크누트 쇼흐(자독), 응에 칸토라이,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지휘),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오케스트라



8.557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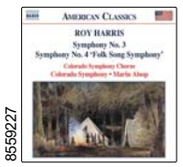
하이든: 교향곡시리즈 31집 (18, 19, 20, 21번)

케빈 말론
토론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8.557846

리스트: 교향시 3집 (1번 '산에서 들은 것', 7번 '축제의 소리', 11번 '훈족의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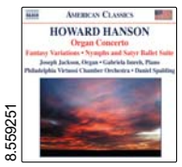
미카엘 할라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8559227

해리스: 교향곡 3번, 교향곡 4번-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미국민요 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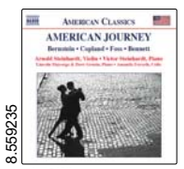
마린 알소프
콜로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8.559251

핸슨: 오르간협주곡, 발레모음곡 '님프와 사티르', 젊은이의 주제에 의한 환상변주곡, 세레나데, 여름바다풍경, 전원곡

조셉 잭슨(오르간), 다니엘 스팔딩
필라델피아 비르투오지
체임버 오케스트라



8.559235

미국여행 (베넷: 헥사포다, 포스: 3개의 미국소품, 번스타인: 바이올린소나타, 코플랜드: 아상곡, 벌리그: 남부스케치, 스테인하트: 탱고, 마요르가: 블루릿드, 그루신: 3개의 라틴메리카댄스)

아놀드 스테인하트(바이올린),
빅터 스테인하르, 데이브 그루신,
링컨 마요르가(피아노)

8.559262

볼페: 실내악작품집 (현악사중주,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품, 플루트 트리오, 오보에, 첼로, 타악기, 피아노를 위한 소품)

더 그룹 오브 컨템퍼러리 뮤직

8.557894

베르디: 〈돈 카를로〉 하이라이트

야코 리헤넨(필립2세), 라스 클레브맨(돈 카를로), 페터 마테이(로드리고), 힐케비 마르틴펠토(엘리자베스), 잉그리드 토비아슨(에볼리), 알베르토 홀드-가리도/ 로얄 스웨덴 오페라

8.559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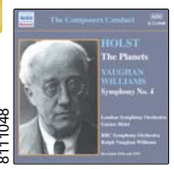
헬프맨: 합창교향시 '새로운 유대설화', '첫 수확절', '성채' 발췌

디어도어 비켈(낭송), 남부 캘리포니아 합창 소사이어티, 닉 스트림플, 영 뮤지션스 파운데이션 데뷔 오케스트라 외

8.111232-34(3CDs)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1954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코프(피오딜리지), 낸 메리맨(도라벨라), 리사 오토(데스피나), 레오폴드 시모노(페란도), 롤란도 파네라이(구글리엘모), 세스토 브루스칸티니(돈 알폰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8111048

홀스트: 행성 모음곡 & 본 윌리엄스: 교향곡 4번

구스타프 홀스트
런던 심포니
랄프 본 윌리엄스
BBC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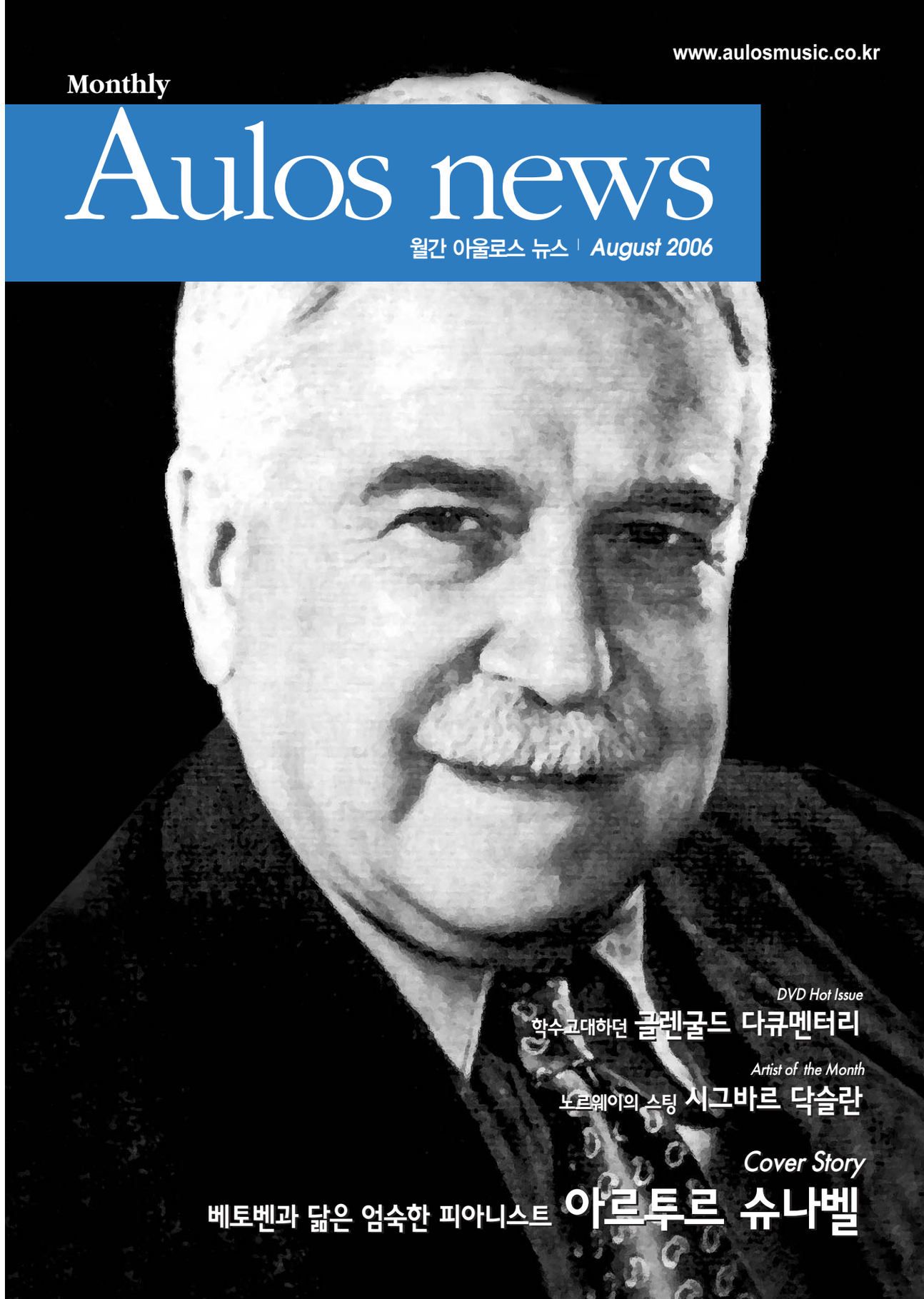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www.aulosmusic.co.kr

www.aulosmusic.co.kr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August 2006



DVD Hot Issue

학수고대하던 글렌굴드 다큐멘터리

Artist of the Month

노르웨이의 스팅 시그바르 닥슬란

Cover Story

베토벤과 닮은 엄숙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

베토벤과 닮은, 엄숙한 이미지의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 Artur Schnabel

20세기 위대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은 1882년 폴란드의 리프니크(Lipnik)에서 태어났다. 일곱 살 때 테오도르 레셰티츠키(Theodor Leschetizky) 선생한테 배웠는데, 이때 그의 선생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너는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할 거야. 너는 음악가란다." 슈나벨은 스승의 이 말을 음악인생의 모토로 삼고 평생 마음 깊이 새겼다. 당연히 그의 취미는 당시 음악풍조와는 거리를 두었고, 실제로 연주회장에 들고 나오는 레퍼토리도 달랐다.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 당대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선택하는 리스트 음악은 외면했다. 그 대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독일계 고전, 낭만 음악 중심으로 자신의 연주 활동을 펼쳐나갔다. 1890년 빈에서 데뷔한 후, 1896년부터 대중 앞에 다시 돌아와 활동했고, 1900년에는 베를린으로 가서 정착했다. 독일 지방을 여행하던 중 그는 콘트랄토 가수인 테레제 베르(Therese Behr)를 만나게 되었고 1905년에는 그녀와 결혼했다. 베르는 슈만, 브람스 그리고 슈베르트의 예술 가곡을 잘 부르는 가수로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레퍼토리는 자연스럽게 슈나벨의 레퍼토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베를린 시절, 슈나벨은 플레쉬(Flesch), 베커(Becker), 카잘스(Casals), 포이어만(Feuermann), 푸르니에(Fournier), 힌데미트(Hindemith), 후베르만(Huberman), 시게티(Szigeti), 프림로즈(Primrose) 등과 실내악 앙상블 활동도 했다. 이 시기에 슈나벨은 예술적으로 가장 활력이 넘치는 피아니스트로 평가받았다. 그는 젊은 러시아 첼리스트 피아티고르스키(Pyatigorsky)와 함께 '달에 홀린 피에로(Pierrot lunaire)'의 초연을 맡았는가 하면 현악 4중주 등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베토벤을 연주하는 방법과 한창 인정받던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의 베토벤 해석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이른바 '독창적인 비르투오소' 였다. 1925년부터 슈나벨은 연주활동을 더욱더 강화했고 가르치는 일에도 정력을 쏟아, 클리퍼드 커즌(Clifford Curzon), 클로드 프랑크(Claude Frank) 같은 유명한 두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베를린 국립 아카데미에서 피아노 클래스를 맡아 전설적인 피아노 교수법을 발전시켰던 일은 그의 명성을 쌓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1933년 나치가 집권해서 베를린을 떠날 때까지 슈나벨은 이 직책을 고수했다. 슈나벨은 물론 주요 유럽국가에 연주여행을 했고 1921년에는 첫 미국 공연을 하기도 했다. 1930년부터 슈나벨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 소나타 전곡, 그리고 디아벨리 변주곡 등을 녹음했다. 베토벤의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베를린에서 두 번이나 개최하는 기염을 토했고, 그 경이로운 전곡 연주회는 1934년에 런던에서도 이뤄졌다. 이 시기에 그의 베토벤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은 최고의 높이에 있었다. 베를린을 떠난 후에 슈나벨은 이탈리아 코모(Como)호수에 있는 트레메초(Tremezzo)에서 써머 클래스를 열기도 했고, 1934년에는 처음으로 지중해 동쪽의 나라 팔레스타인(Palestine) 땅을 밟기도 했다. 오랫동안 자신의 생활 기반이었던 독일 땅이 전체주의에 휩싸여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이때 그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1944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전쟁기간동안 슈나벨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여름에는 미시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51년 8월 15일 스위스의 루체른(Lucerne) 호수근방에서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비평가 헤럴드 숀버그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에서 '베토벤을 창조한 사람(The man who invented Beethoven)'이란 글을 통해 슈나벨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놓았다. "슈나벨은 키가 작고, 머리가 컸으며, 다부진 체구에 손가락은 뭉뚝했고 시가를 즐겼다. 그는 피아니스트 하면 으레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건반 위에서의 그는 인상적인 곳이라고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은 어쩔 수 없이 쇼맨(showman)이 된다. 리스트 이래 피아니스트는 그랬었다. 대부분의 낭만주의 피아니스트들은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콧구멍에서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눈은 밝게 반짝였다. 그러면 청중들은 연거푸 큰 소리로 환호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슈나벨이 속해있는)새로운 피아니스트 악파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슈나벨은 손을 높이 치켜드는 일이 없었고 머리를 흔들지도 않았으며, 콘서트 홀 꼭대기에 있는 신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연주하고 있으면, 객석에는 교회에서 느껴지는 엄숙한 고요가 흘렀다. 그의 연주회는 서커스 공연이 아니고 성찬식이었다. 그래서 청중이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정화된 느낌이었다. "베토벤의 엄숙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슈나벨." 그는 실제로 베토벤을 잘 연주했고 당대 최고의 베토벤 연주가로 인정받았다. 슈나벨의 연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다.

그의 베토벤 연주 왜 위대한가? 숀버그의 표현을 빌리면 "그의 베토벤은 비교할 바 없는 독특한 양식, 지적인 강인함, 그리고 귀족적인 품위의 순수함을 갖춘 프레이징을 갖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손가락이 그를 좌절시킬 때도 그의 정신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슈나벨의 위대함은 특히 베토벤의 장대한 후기 소나타들, 즉 28번부터 32번까지의 연주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나타났다. 30번(op.109)의 서정적 음형을 노래할 때, 31번(op.110)의 느린 악장에서 보여주는 갓 피어난 여린 꽃처럼 순결한 영혼, 32번에서 보여주는 싸늘한 은하계의 비전 같은 것은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어떠한 과장도 없고 어떠한 정서적 속임수도 없으며 단지 머리와 마음과 손가락이 하나가 되어 어떤 놀라운 세계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슈나벨의 내면적인 연주는 깊고 고요한 정신성을 특징으로 하는 브람스 작품의 연주에서도 고상한 기품으로 나타났다. 그의 브람스 연주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이다. 이 곡은 그가 특히 좋아해 아주 많이 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숀버그는 이 작품 연주에 얽힌 흥미롭고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를 전하고 있다. "한번은 그가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브람스의 B플랫 장조 협주곡을 연주한 적이 있었다. 이 협주곡은 그가 전문으로 하는 레퍼토리 중의 하나였고, 백 번 이상이나 공개 연주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느린 악장을 연주할 때 모든 연주가들이 한 두 번은 겪었을만한 일, 즉 기억 착오 현상이 일어났다. 슈나벨과 오케스트라는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청중석에서는 겁에 질린 듯한 숨막힘이 있었고 음악은 시들해져 멈춰버렸다. 발터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슈나벨은 단지 싱긋이 웃어 보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지휘대로 걸어갔다. 백발의 나이가 지긋한 두 사람은 몸을 굽혀 악보를 보았고, 오케스트라에 불평 섞인 지시를 내리고는 슈나벨이 피아노로 돌아갔고 음악은 다시 시작되었다. 다른 피아니스트였다면 정신적 충격과 당황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슈나벨은 아니었다. 그는 이전과 같이 아름다운 연주를 지속했다. 아니 연주는 훨씬 더 아름답게 흘렀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 청중은 연주자가 좀 전에 실수했었다는 기억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이 에피소드는 물론 슈나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악에 몰두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했기에 기분 상한 청중들이 모든 실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그가 연주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꼭 듣고 싶다는 욕망이 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에이드리언 보울트가 지휘하고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낙소스 음반으로 에피소드와 얽힌 그의 격조 높은 브람스를 감상할 수도 있다. (이성일)

낙소스가 자랑하는 슈나벨의 명반들

BRAHMS: Piano Concerto No. 2 / SCHUMANN: Kinderszenen (Schnabel) (1935, 1947) **8.110665**
BRAHMS: Piano Concerto No. 1 (Schnabel) (1938) **8.110664**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 Cello Sonata No. 2 (Schnabel) (1932) **8.110640**
BEETHOVEN: Piano Concertos Nos. 3 and 4 (Schnabel) (1933) **8.110639**
BEETHOVEN: Diabelli Variations / Bagatelles, Op. 126 / Rondo a capriccio (Schnabel) (1937) **8.110765**
BEETHOVEN: Eroica Variations / Bagatelles, Op. 33 / Variations, Op. 34 (Schnabel) (1937-1938) **8.110764**
BEETHOVEN: Piano Sonatas Nos. 11-13 (Schnabel) (1932-1934) **8.110756**

피아니스트

유미정 Meejung Yoo

모차르트 : 피아노 소나타
Most Loved and The Young Phenomenon
KV330, 545, 331, 310, 280, 282, 309, 284

연주자가 직접 고른 모차르트의 8가지 보석
단국대 교수이며 국내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 중의 한 사람인 유미정이 2004년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금호아트홀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실황. 이 음반은 전곡 중 연주자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한 여덟 곡의 음원만을 간추렸다. 콘서트 프로그램에도 일일이 제목을 달아 화제가 되었던 그녀는 이번 음반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을 〈Most Loved〉로, 청년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가장 잘 엿보이는 소나타들을 〈The Young Phenomenon〉이란 제목으로 나눠 실었다.

피아니스트 유미정은 피바디 음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 음대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Richmond Youth Symphony Orchestra 콩쿠르, Elizabeth Davis Memorial 콩쿠르, Performers of Connecticut, Peabody Yale Gordon 콩쿠르, Ohio Youngstown Orchestra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였다. 또한 피바디 음대 재학 중 Marie Milholand Award, 그리고 예일 음대에서는 Elles Grumman Award를 수상하였다. Richmond Symphony, Richmond Sinfonia, Younstown Symphony Orchestra, KBS 교향악단, 대전 시향, 강릉 시향 등과 협연하였고 Walters Art Gallery(Baltimore, Maryland) Concert Series 개최 연주, 예술의 전당, 금호아트홀을 비롯한 다수의 초청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회에 참가하였다. 스페인의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Piano Festival에 초청 교수로 참가하여 독주회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2004년에는 '모차르트 음악지도' 라는 테마로 4회에 걸쳐 전곡을 완주하였다. 피아니스트 유미정은 연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였고, 경원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C-0009

Most Loved 그리고 The Young Phenomenon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이미 모두에게 친숙해진 작곡가로 그의 음악은 맑고 순수함으로부터 극적인 드라마와 우울함까지의 다양한 감정의 팔레트를 우리 가슴에 극히 자연스럽게 호소한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더 나아가 18개의 소나타를 들여다 보면 작곡가로서의 성숙과정, 음악중심의 가족관계, 연주여행의 경로 등 모차르트 35년의 짧은 생애 중 18세부터 33세까지 15년의 소중한 삶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천재 피아니스트의 빛나는 기량, 협주곡의 화려한 카덴차, 오페라의 아름다운 아리아와 기발한 유머, 실내악의 긴밀한 대화가 독주곡인 소나타 속에 살아 숨 쉰다. 그러므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마치 모차르트와 더불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실내악곡과 같은 다른 장르의 작품을 모두 경험하는 것과 같아 그 의미가 특별하다. 소나타 전곡의 실황 연주 중에서 발췌된 8개의 소나타는 2개의 음반에 나뉘어 수록되었다. 첫 번째 음반 'Most Loved' 는 가장 대중적이며 사랑받고 있는 4개의 소나타 K. 310, 330, 331과 545를, 두 번째 음반 'The Young Phenomenon' 는 자주 연주되지 않으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청년 모차르트의 천재성으로 가득한 4개의 소나타 K. 280, 282, 284, 309를 담고 있다. K. 280과 282는 짤즈부르그에서 1774년에 작곡되었다. K. 280에는 아직 harpsichord style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시칠리엔느(Sicilienne) 분위기의 2악장과 하이든의 간결한 미뉴엣을 연상시키는 3악장이 특징적이다. K. 282는 피아노라는 악기의 성능이 충분히 사용된 곡이며, 교과서적인 소나타형식에서 벗어나 서정적이며 느린 아다지오 악장으로 시작하여 미뉴엣I - II로 이루어진 2악장을 거쳐 2부형식의 3악장으로 끝맺음을 갖는 독특한 성격의 간결한 작품이다. 1775년 뮌헨에서 작곡된 K. 284는 K. 282와는 대조적으로 초기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를 자랑한다. 경쾌한 주제는 화려한 기교와 더불어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3악장은 독립된 변주곡보다도 분량이 많은 주제와 12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져있다. 3년 뒤 만하임에서 작곡되어 만하임 악파의 교향곡적인 작곡 스타일이 반영된 K. 309는 Kapellmeister Cannabich의 15살 난 딸을 위해 쓰여졌으며, 2악장은 소녀의 초상화를 그리듯 우아한 소녀의 자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좋은 점은 들어 있지 않고, 판에 박힌 만하임 스타일만을 나타냈을 뿐이다"라고 평하였다.

'Most Loved' 의 K. 545는 작곡가가 32세 때 빈에서 작곡하였으며, 특히 1악장은 서양음악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곡으로 알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은 접해보는 초급에서 중급에 해당되는 곡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모차르트의 성숙기에 속한 작곡기법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며 유용한 작품을 쓰기위해 예술성을 조금도 희생시키지 않은 명곡 중 명곡이다. 2개의 단조 소나타 중 하나인 K. 310은 1778년 파리에서 작곡되어 화려하고 웅장했던 파리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쳐흘러 연주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K. 310만큼이나 자주 연주되는 K. 330과 331은 1783년에 작곡되었다. K. 330은 피아노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며 모차르트가 쇼팽과 리스트와 같은 비르투오소였음을 알 수 있다. K. 331은 1악장이 주제와 변주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이다. K. 331을 더욱 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하는 것은 터키행진곡으로 알려진 3악장이다. 전형적인 론도 형식이나, 터어키 병정들의 행진곡으로 군악대를 모방한 드럼, 심벌즈, 벨, 트라이앵글 소리가 이색적이며 당시 파리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위의 소나타들을 모차르트가 먼저 연주하고 나중에 악보로 옮긴 경우도 있었음과 주로 모차르트 자신이 궁정이나 왕가의 사적인 연주회 또는 가족과 측근들 앞에서 소나타를 즐겨 연주하였음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즉흥성이 당연히 작곡가 자신의 권위 아래 맘껏 펼쳐졌을 것이다. 당시 모차르트 자신의 연주로 청중에게 즉흥적으로 전달되었을 감흥은 스튜디오 녹음이 아닌 실황 연주 음반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근접할 수 있어 모차르트 소나타의 실황 음반의 가치는 더 더욱 높다. 낭만주의 음악보다 더 낭만적이며 끝없이 변하는 색채와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모차르트 음악의 세계가 담겨진 피아니스트 유미정의 거침없는 실황 연주가 금호클래식스 라이브 콜렉션으로 출반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글 / 박미정(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유미정의 손 끝에서 흘러 나오는 모차르트 음악은 그녀의 타고난 그러면서도 완성된 해석자의 면모를 보여 주었으며, 우아함과 섬세함부터 웅장한 오페라적 규모와 극적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다양한 뉘앙스를 구현한 탁월한 피아니스트이다. 유미정은 모차르트 전곡을 완주하는 동안 완벽한 모차르트 멜로디의 단순미, 유연함, 그리고 탄력성을 비롯하여 모차르트 음악이 가지는 거대한 구조적 힘과 광대함에 관해 음악적 통찰력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유미정의 음반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신선함, 생동감, 그리고 현장감은 '라이브' 연주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가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라이브' 연주를 통해, 스튜디오 음반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접적 교감을 발견할 수 있다. 유미정의 연주처럼 우리에게 콘서트 홀에서의 현장감을 연속적으로 전달하여 줄 수 있는 대담함, 음악적 견고함, 그리고 완성된 기교를 보여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는 매우 흔치 않다. 유미정의 '라이브' 음반은 모차르트의 무한한 천재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값진 기념비적 음반이라 할 수 있다.

– 줄리앙 마틴(피아니스트, 교수), 줄리어드 음악원

먼저 유미정의 '라이브' 음반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유미정의 연주는 완벽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 연주는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현장에 있는 청중들도 정확성 여부에 의해서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미정의 연주는 정확성과 완벽성을 넘어선 그 이상의 무엇이라 할 수 있다. 유미정의 연주는 모차르트 음악에서 요구되는 스타일에 따라 곡과 곡, 그리고 곡 내부 사이의 많은 변화와 함께 극도의 다양함, 화려함, 뛰어난 상상력,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연주라 할 수 있다. 유미정의 연주를 듣는 그 자체가 나에겐 큰 기쁨이었다.

– 클로드 프랭크(피아니스트, 교수), 예일 음대

유미정의 모차르트 연주는 극도로 섬세하며, 명쾌한 느낌을 준다. 특히 모차르트 음악 특성에 관한 깊은 이해가 베어있다.유미정은 청중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로서의 즐거움을 유감없이 전달하였으며, 유미정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완주는 일종의 '사랑의 작품' 이라 말할 수 있다.

– 보리스 베르만(피아니스트, 교수), 예일 음대

NAXOS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시모네 람스마 바이올린 리사이틀
(엘가: 바이올린소나타, 로망스, 사랑의 인사, 밤 인사, 아침인사 외)

시모네 람스마(바이올린), 유리에 미우라(피아노)

2004년 벤자민 브리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2005년 중국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수상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시모네 람스마의 낙소스 데뷔음반. 이색적으로 엘가의 작품들만으로 음반 전체를 장식하였다. 엘가의 바이올린소나타는 그간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어온 작품. 동시대 대륙의 여느 소나타들에 뒤지지 않는 농밀한 낭만성과 엘가 특유의 진지한 음악스타일을 함께 보여준다. 사랑의 인사를 비롯한 작곡가의 사랑스러운 소품들이 음반의 여백을 알차게 채워 놓았다.

Naxos 8.557984

헨델: 오라토리오 〈솔로몬〉

에바 볼락(솔로몬), 엘리자베스 솔(왕비), 니콜라 베미스(시바의 여왕), 크누트 쇼흐(자독), 융에 칸토라이,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지휘),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오케스트라

헨델의 주요 오라토리오들을 섭렵 중인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가 '메시아', '유다스 마카베우스' 와 함께 작곡가의 가장 뛰어난 오라토리오로 손꼽히는 '솔로몬' 에 도전하였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현왕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오라토리오는 '시바여왕의 도착' 과 같은 귀에 익은 관현악 소품을 비롯하여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노래들과 극적인 합창이 적절히 어우러진 일급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Naxos 8.557574-75

라이넥케: 하프협주곡, 플루트협주곡

패트릭 갈르와(플루트, 지휘), 파브리스 피에르(하프, 지휘)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칼 라이넥케는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자, 지휘자, 피아니스트 등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음악가로 작곡가로도 3편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오페라, 협주곡 등등의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양식적으로 멘델스존이나 슈만의 그것을 연상시키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협주곡 역시 유려한 선율과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위로 독주자들의 화려한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로맨틱 협주곡의 전형을 보여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상급 플루트연주자 패트릭 갈르와와 리용 국립음악원 교수인 파브리스 피에르가 지휘와 독주를 번갈아 맡으며 최상의 연주를 들려준다.

Naxos 8.557404

하이든: 교향곡시리즈 31집 (18, 19, 20, 21번)

케빈 말론, 토론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 음반에 수록된 네 편의 초기 교향곡들 중에서 앞의 세 작품은 1759년 무렵에 완성된 것들로, 이때는 하이든이 자신의 첫 번째 안정된 직장이었던 모르친백작의 음악 감독을 맡던 시절이었다. 마지막 21번은 막 에스테르히치 가문으로 거처를 옮길 무렵인 1761년에 완성된 작품. 네 작품 모두 현5부에 혼과 오보에가 추가된 단출한 편성을 취하고 있으나, 20번에는 예외적으로 트럼펫과 팀파니를 추가되었다. 이전 하이든 교향곡 음반들을 통해 호평을 받았던 말론과 토론토 체임버(구 토론토 카메라타)의 절충주의적인 접근법이 이번 음반에서도 예외 없이 좋은 성과를 일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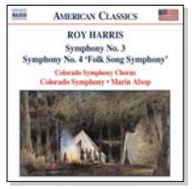
Naxos 8.557657

리스트: 교향시 3집
(1번 '산에서 들은 것', 7번 '축제의 소리', 11번 '훈족의 전투')

미카엘 할라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스트는 교향곡의 정형화된 틀을 탈피하여 보다 자유로운 캔버스 위에서 자신의 감성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관현악장르인 교향시를 창시하였다. 그는 모두 13편의 교향시를 남겼는데, 그 시작을 알린 작품이 바로 빅토르 위고의 시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 '산에 들은 것' (일명 산상교향곡)이었다. 제목 그대로 훈족의 호전성을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표현한 '훈족의 전투', 축제의 흥겨움을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묘사한 '축제의 소리' 가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7846



해리스: 교향곡 3번, 교향곡 4번–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미국민요 교향곡

마린 알소프, 콜로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오클라호마 출신인 로이 해리스(1898–1979)는 코플랜드와 더불어 20세기 전반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교향곡 작곡가였다. 특히 음반에 수록된 3번은 '미국 작곡가의 손으로 완성된 최초의 위대한 교향곡' 이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미국적인 정서에 충실한 그의 작품들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작품이 교향곡 4번이다. 타이틀 그대로 '조니의 개선' 을 비롯한 귀에 익은 미국 민요와 흑인영가들을 소재로 만든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스펙터클한 작품이다.

타케미츠:
영혼의 정원, 고독의 소리, 현을 위한 세 개의 영화음악,
꿈꾸는 시간, 오각정원에 내려온 새들

마린 알소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대한 일본 작곡가 토루 타케미츠의 사망 10주기 기념음반. 그는 서구권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 음악계에 동양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었다. 본 음반에는 20대 작품인 '고독의 소리' 에서부터 사망 2년 전에 완성된 '영혼의 정원', 그리고 작곡가의 가장 인기작품인 '오각 정원에 내려온 새 떼' 까지 대표적인 관현악곡들이 엄선되었다. 현존 최고의 여류 지휘자이자 현대음악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왔던 마린 알소프가 지휘를 맡았으니 음반에 대한 신뢰감은 한층 커진다.

Naxos 8.557760

핸슨: 오르간협주곡, 발레모음곡 '님프와 사티르',
젊은이의 주제에 의한 환상변주곡, 세레나데, 여름바다풍경, 전원곡

조셉 잭슨(오르간), 다니엘 스팔딩, 필라델피아 비르투오지 체임버 오케스트라

하워드 핸슨(1896–1981)은 20세기 미국음악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작곡가이다. 그는 활동시기에 비해 과거 낭만시대의 향수를 듬뿍 머금은 대단히 보수적인 음악스타일을 고수했다. 풀랑의 작품에 비견될만한 화려한 오르간협주곡을 필두로, 아기자기한 춤곡들을 모은 '님프와 사티르', 플루트와 하프의 서정성이 강조된 세레나데, 비올라의 풍성한 울림이 돋보이는 여름바다풍경, 오보에의 관능적인 비음과 하프의 투명한 울림이 조화를 이룬 전원곡에 이르기까지 작곡가의 복고적인 성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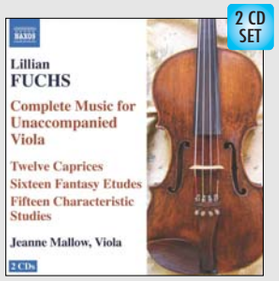
Naxos 8.559251

미국여행
(베넷: 헥사포다, 포스: 3개의 미국소품, 번스타인: 바이올린소나타,
코플랜드: 야상곡, 벌리그: 남부스케치, 스테인하트: 탱고, 마요르가: 블루필드,
그루신: 3개의 라틴아메리카댄스)

아놀드 스테인하트(바이올린), 빅터 스테인하르, 데이브 그루신, 링컨 마요르가 (피아노)

바이올리니스트 아놀드 스테인하트가 안내하는 미국 음악여행. 코플랜드의 전형적인 아메리칸 포크 클래식, 번스타인의 대중적인 음악, 스테인하트의 탱고, 흑인작곡가 버리그의 남부음악, 퓨전재즈의 달러박스 데이브 그루신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흔히 멜팅팟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개성만점의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보사바로크' 의 주인공 데이브 그루신이 직접 연주까지 맡았다.

Naxos 8.559235



Naxos 8.557932-33

릴리안 퍼츠: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음악들 (16개의 환상연습곡,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전원소나타, 15개의 성격적 연습곡, 12개의 카프리스)

진 말로우(비올라)

명 바이올리니스트 조셉 퍼츠의 여동생이었던 릴리안 퍼츠는 '비올라의 퍼스트레이디' 라 불리며 프림로즈와 더불어 이 만년조연악기를 음악계의 당당한 주역으로 각광받게끔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연주가로서의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악기를 위한 무반주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비올라가 지닌 중저음의 매력이 한껏 강조된 이 작품들은 교습용 음악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감상적인 측면에서도 큰 만족감을 준다. 연주를 맡은 진 말로우는 바로 퍼츠의 손녀. 할머니의 악기였던 가스파로 다 살로를 이번 녹음에 사용하였다.

Naxos 8.559262

볼페: 실내악작품집 (현악사중주,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품, 플루트 트리오, 오보에, 첼로, 타악기, 피아노를 위한 소품)

더 그룹 오브 컨템퍼러리 뮤직

슈테판 볼페(1902-1972)는 베를린 출생으로 나치의 압제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뉴욕을 중심으로 이른바 '음조의 이중복합' 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신의 독특한 음악양식을 정립하였고, 교육자로서도 모턴 펠트만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중견작곡가들을 길러내었다. 이 음반에는 그의 대표적인 실내악작품들이 엄선되었다. 작곡과 즉흥연주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현악사중주, 만화경처럼 음악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플루트 트리오, 양철깡통이나 주방의 강판과 같은 독특한 소재를 음악 속으로 끌어들인 오보에, 첼로, 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 등등 개성만점의 작품들을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Naxos 8.557894

베르디: 〈돈 카를로〉 하이라이트

야코 리헤넨(필립2세), 라스 클레브맨(돈 카를로), 페터 마테이(로드리고), 힐레비 마르틴펠토(엘리자베스), 잉그리드 토비아손(에볼리), 알베르토 홀드-가리도, 로얄 스웨덴 오페라

1999년 12월과 2000년 1월에 걸쳐서 스웨덴 왕립 오페라에서 펼쳐졌던 공연실황을 옮겼던 전곡음반(8.660096-98)에서 하이라이트를 간추린 음반. BBC Music Magazine은 이 연주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알베르토 홀드-가리도에 의해 노련하게 지휘된 음반. 그의 열정적이고도 오점 없이 섬세한 해석이 이 음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다. 스웨덴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기량은 최상급이며, 우수한 솔리스트들이 가세하였다. 특히 잉그리드 토비아손의 감동적이고도 화려한 에볼리가 돋보인다.

Naxos 8.557541

바르나바스 켈레멘 바이올린 리사이틀 (라벨: 치간느,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바르톡: 루마니아 민속춤곡, 랩소디 1,2번, 리스트: 로망스 외)

바르나바스 켈레멘(바이올린), 페터 나지(피아노)

2002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의 금메달리스트인 헝가리 바이올리니시트 바르나바스 켈레멘의 낙소스 데뷔음반. 수상이후 여러 메이저 무대에서 행해진 콘서트와 리사이틀을 통해 주목할 만한 젊은 연주자로 구미 음악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는 2005년에는 모국의 리스트 음악원의 바이올린 교수로 임명되면서 교육자로서도 맹활약중이다. 본 음반에는 그의 출중한 기교가 맘껏 발휘된 대표적인 인기 쇼피스들인 치고이네르바이젠과 치간느 외에도 조국의 작곡가들인 바르톡과 리스트의 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440

헬프맨: 합창교향시 '새로운 유대설화', '첫 수확절', '성궤' 발췌

디어도어 비켈(낭송), 남부 캘리포니아 합창 소사이어티, 닉 스트림플, 영 뮤지션스 파운데이션 데뷔 오케스트라 외

맥스 헬프맨(1901-1963)은 작곡가, 합창지휘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유명한 음악캠프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음악교육자로서 미국 유태음악계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1948년 작품인 대편성 합창곡인 '새로운 유대설화'는 바로 5년 앞서 벌어졌던 바르샤바 유태게토의 처절한 봉기를 드라마틱하게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음반은 이 작품의 세계최초녹음. 그밖에 전형적인 유태종교합창곡들인 '첫 수확절' 전곡과 토라 전례 '성궤'의 단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www.naxos.com

Naxos 8.111232-34

모차르트 : 코지 판 투테 (1954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피오르딜리지), 낸 메리맨(도라벨라), 리사 오토(데스피나), 레오폴드 시모노(페란도), 롤란도 파네라이(구글리엘모), 세스토 브루스칸티니(돈 알폰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본 녹음은 카라얀이 남긴 유일한 〈코지 판 투테〉의 스튜디오 레코딩이다. 우아한 매력이 넘쳐나는 슈바르츠코프의 피오르딜리지를 필두로 관록의 바리톤 브루스칸티니와 파네라이, 빼어난 미성의 소유자 시모노 등이 젊은 카라얀의 열정적인 지휘 아래서 최상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슈바르츠코프가 노래하는 9곡의 모차르트의 인기 오페라 아리아(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등)들이 부록으로 제공된다.

Naxos 8.111048

홀스트: 행성 모음곡 & 본 윌리엄스: 교향곡 4번

구스타프 홀스트 / 런던 심포니, 랄프 본 윌리엄스 / BBC 심포니

20세기 전반기를 장식하는 영국의 두 관현악 걸작들을 작곡가 본인들이 직접 지휘한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홀스트가 지휘한 〈행성〉은 이후의 그 어떤 연주들보다도 열정적이다. 특히 빠른 템포와 강한 모멘텀으로 휘몰아치는 화성과 목성의 강렬한 인상이 돋보인다. 본 윌리엄스가 지휘한 교향곡 4번 역시 이 드라마틱한 작품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을 보여준다.

Naxos 8.110773

이탈리아 파퓰러 송 2집

마리오 델 모나코, 베냐미노 질리, 티토 스키파, 주제페 디 스테파노, 알레산드로 발렌테, 아르만도 토카티얀, 아우렐리아노 페르틸레, 요제프 슈미트, 엔리코 디 마체이

토스티의 〈4월〉을 비롯한 데 쿠르티스, 디 카푸아, 마스카니, 덴차 등의 나폴리 성악곡들

20세기 초중반 성악 황금기의 위대한 목소리들로 감상하는 귀에 익은 나폴리 민요들.

Naxos 8.111121

피아노 앞의 여인들 2집

아니아 도르프만, 마리 아이메 와로, 블랑세 셀바, 릴리 크라우스, 레아 에펜바흐, 이렌느 섀어, 갈리나 베르첸스카, 엘지 홀, 욜란다 메뢰, 무리엘 케르, 클로데트 소렐, 올가 사마로프 외

20세기 전반기를 장식한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들의 발자취를 담은 낙소스의 〈피아노 앞의 여인들〉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릴리 크라우스, 스토코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올가 사마로프, 프랑스 근대 피아노 레퍼토리에서 큰 업적을 남긴 블랑세 셀바 등등, 1926-1950년 사이에 녹음된 20명의 소중한 기록들을 모았다.

Hits of the 1930's Volume 2

1930년대를 풍미하던 추억의 노래들

오지 넬슨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빙 크로스비의 〈Out of nowhere〉, 폴 화이트맨의 〈It's only a paper moon〉, 루디 발리의 〈Home〉, 어빙 베를린의 〈Let's have another cup of coffee〉 외

Naxos 8.120842

듀크 엘링턴: Time's A-Wastin'

original 1945-1946 recordings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듀크 엘링턴,
그의 1940년대 중반 레코딩.

Pretty Woman, Memphis Blues,
St Louis Blues, Perfume Suite, Time's A-Washin',
I'm Just A Lucky So And So
etc...

Naxos 8.120811

Wigmore Hall Live Series

**1901년 개관 이후 세계적인 리사이틀 홀로
확고한 명성을 누리고 있는 런던의 위그모어 홀.
유서 깊은 이 연주회장에서 펼쳐졌던 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의 공연실황이
위그모어홀 라이브 시리즈를 통해 음반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차이코프스키: 현악사중주 3번 Op.30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D810 〈죽음과 소녀〉

코펠만 현악사중주단 – 미하일 코펠만 (1st vn), 보리스 쿠슈니르(2nd vn), 이고르 숄리가(va), 미하일 밀만(vc)

2006년 1월 28일 런던 위그모어홀 실황

코펠만 현악사중주단은 로스티슬라브 두빈스키에 이어서 보로딘 현악사중주단의 제 1바이올린을 20년 가까이 담당했었던 저명한 실내악연주자 미하일 코펠만이 2002년에 새롭게 조직한 현악사중주단이다. 코펠만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의 이력 역시도 만만찮다. 쿠슈니르는 율리안 라츨린과 니콜라이 츠나이더를 배출한 명교사였으며, 숄리가와 밀만은 스피바코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비르투오지의 핵심멤버로서 활동했었다. 자신들의 몸에 배인 슬라브적인 정취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인 차이코프스키의 현악사중주와 함께 현악사중주의 영원한 베스트 레퍼토리인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함께 담았다.

WHLive 0010

Music-Web International

www.musicweb-internation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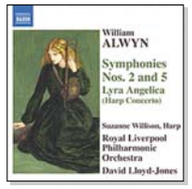
뮤직-웹 인터내셔널은 인터넷상의 가장 방대한 리뷰 사이트를 지향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70명가량의 리뷰어들이 매달 300장 내외의 클래식 음반들의 리뷰를 싣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4,000개 이상의 리뷰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리뷰어들이 추천하는 2005년과 2006년 상반기를 대표하는 아울로스 관련 음반
(Naxos, MDG, Dacapo, Marco Polo, Propirus, LPO 등)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NAXOS DG DACAPO MARCO POLO proprius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 Recordings of the Year 2005 -

사이트 운영자 Len Mullenger가 선택한 올해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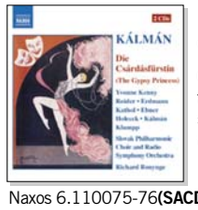
윌리엄 올윈: 교향곡 2번, 교향곡 5번, 하프협주곡 '천사의 리라'

수잔 윌슨(harp),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반. 작곡가 자신이 지휘한 리리타 레이블의 음반들과 힉콕스가 완성한 샨도스의 뛰어난 음반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음악계에 작곡가의 진가를 제대로 알려준 결정적인 계기는 낙소스의 올웬 시리즈를 통해서였다. 작곡가의 대표적인 교향곡 두 곡(특히 장대한 5번)과 대단히 아름다운 하프협주곡이 함께 수록된 대단히 알찬 구성을 보여준다.

Naxos 8.557647

리뷰어 Terry Barfoot이 선택한 올해의 음반



엠머리히 칼만: 오페레타 〈차르다슈의 여왕〉

이본느 케니(실바), 미카엘 로이더(에드윈), 모이카 에드만(백작부인), 마르코 카톨(백작),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합창단,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리처드 보잉

칼만을 최초로 접하는 이들이라면 이 음반이 대단히 유용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오페레타의 하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 발췌한 매력적인 관현악 단편들도 함께 수록하였다.

Naxos 6.110075-76**(SACD)**, 8.660105-06**(Normal CD)**

리뷰어 Goran Forsling이 선택한 올해의 음반

요제프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임선혜(Sop), 얀 코보프(Te), 한노 뮐러-브라흐만(Bass), 퀼른 보컬앙상블, 카펠라 아우구스티아나
안드레아스 슈페링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참신한 이 위대한 걸작에 대한 대단히 신선하고도 매력적인 레코딩. 최상의 합창단과 뛰어난 세 솔리스트들이 시대악기의 산뜻한 음향과 어우러졌다. 카탈로그에서 발결할 수 있는 최상급의 연주.

Naxos 6.110073-74**(SACD)**, 8.557380-81**(Normal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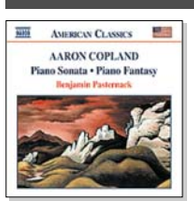
조아키노 로시니: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신데렐라)

조이스 디도나토(안젤리나), 호세 마누엘 자파타(돈 라미로), 파츠리차 치냐(클로린다), 마르티나 보르스트(티스베), 파올로 보르도냐(단디니), 브루노 프라티코(돈 마그니피코), 카이저스라우테른 SWR 방송교향악단, 알베르토 체다

낙소스가 또 한건 해내었다. 로시니의 걸작에 대한 영감 있는 라이브 레코딩. 미국의 메조 디도나토는 타이틀 롤을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게 노래하였고, 베테랑 바소부포 브루노 프라티코가 연기한 돈 마그니피코는 로시니 자신이 아닌가 착각하게 할 정도다.

Naxos 8.660191-92

리뷰어 Tony Haywood가 선택한 올해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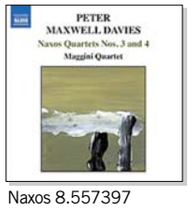
아론 코플랜드: 피아노환상곡, 피아노소나타, 변주곡

벤저민 파스테르낙(pf)

이 뛰어난 음반은 작곡가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우수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파스테르낙은 작곡가가 정성껏 마련한 준엄한 음악구조에 대한 우수한 감각을 보여준다. 이는 진정한 횡재다.

Naxos 8.559184

리뷰어 Glyn Pursglove가 선택한 올해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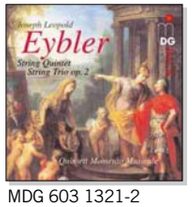
피터 맥스웰-데이비스: 낙소스현악사중주 3번, 4번 '아이들 놀이'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3번 사중주는 광대한 힘, 분노, 고통의 작품이면서도 대단히 아름다운 영국 고유의 '인 노미네' 전통을 따른 긴 느린 악장을 포함하고 있다. 4번은 브뤼겔의 동명회화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암울함이 담겨있다. 마기니 사중주단의 연주는 대단히 장대하다.

Naxos 8.557397

리뷰어 Donald Satz가 선택한 올해의 음반



요제프 레오폴드 아이블러: 현악오중주, 현악삼중주

모멘토 무지칼레 현악오중주단

올해의 놀라운 디스크. 이 즐겁고 유쾌한 음악은 빼어난 구조와 매혹적인 멜로디라인을 보여준다. 근대악기를 사용한 연주이나 최소한의 비브라토를 활용한 시대악기적인 연주주법을 통해 아이블러의 음악에 적합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었다. 고전시대 실내악 애호가라면 이 음반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MDG 603 1321-2

리뷰어 Patrick Waller가 선택한 올해의 음반

프란츠 이그나츠 베크: 6개의 교향곡 Op.1

뉴질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도날드 암스트롱

8월 이 음반을 리뷰할 당시 꽤나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반을 과소평가했었다. 작곡가의 작품목록의 첫 작품이라고 무시하지 말 것. 교향곡 발전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작품들이 수록되어있으며, 연주 또한 대단히 훌륭하다.

Naxos 8.554071

2005년 1월 이달의 저가음반

벤자민 브리튼:
칸티클 I–V, 아브라함과 이삭, 동방박사의 여행, 성 나르시수스의 죽음 외

필립 랑그리지(Te), 진 릭비(Ms), 제럴드 핀리(Bar), 데렉 리 라긴(Counter Te), 쥬디 덴치(narr), 스튜어트 베드포드(pf), 프랭크 로이드(horn), 오시안 엘리스(harp)

20세기의 가장 절묘한 성악곡들에 대한 대단히 우수한 음반. 높이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Naxos 8.557202

2005년 2월 이달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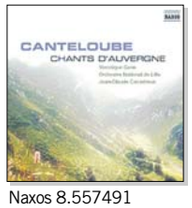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1번, 비극적 서곡, 대학축전서곡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

이 작품들에 대한 알소프의 접근법은 서정적이면서도 열정적이다. 실속 있는 성공작.

Naxos 8.557428

2005년 2월 이달의 저가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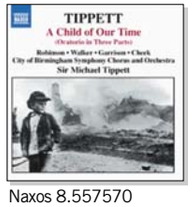
조셉 캉틀루브: 오베르뉴의 노래 발췌

베로니크 장(Ms), 릴 국립오케스트라, 장 클로드 카자드쉬

오베르뉴의 노래에 대한 경제적이면서도 우수한 음반. 장의 노래는 이지적이며, 귀를 유혹하는 오케스트라의 활약상 또한 돋보인다.

Naxos 8.557491

2005년 3월 이달의 저가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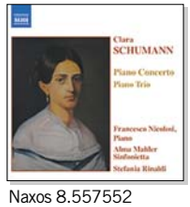
마이클 티펫: 오라토리오 〈우리 시대의 아이들〉

페이 로빈슨(Sop), 사라 워커(Ms), 존 개리슨(Te), 존 칙(Bass), 버밍엄 심포니와 합창단, 마이클 티펫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더더욱 환영받을 만한 음반. 티펫 애호가들은 물론 영국합창음악의 전통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음반을 놓치지 마시라. 강력추천한다.

Naxos 8.557570

2005년 4월 이달의 음반



클라라 슈만: 피아노협주곡, 피아노삼중주

프란체스코 니콜로시(pf), 알마 말러 신포니에타, 스테파니아 리날디

이 중요한 여류작곡가를 경험하고픈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픈 중요하고도 우수한 음반.

Naxos 8.557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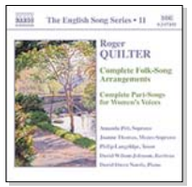
2005년 4월 이달의 저가음반

Naxos 8.111007

프란츠 레하르: 메리위도우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한나), 에리히 쿤츠(백작), 니콜라이 겟다(카미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오토 악케르만

훌륭한 사운드, 우수한 연주, 영광스러운 노래. 누구나 구입하더라도 후회없을 것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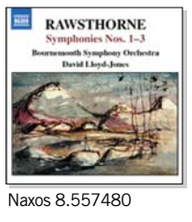


Naxos 8.557495

로저 퀼터: 민요 편곡 전곡, 여성을 위한 파트송 전곡

아만다 피트(Sop), 조안 토마스(Ms), 필립 랑그리지(Te), 데이비드 윌슨 존스(Bar), 데이비드 오웬 노리스(pf)

공감할 만한 연주를 담은 기억해둘만한 음반. 절반 가량의 수록곡은 최초 녹음된 것들이다. 퀼터 애호가와 영국 가곡을 아끼는 이들을 위한 필청반.



Naxos 8.557480

앨런 로손: 교향곡 1–3번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신중하게 준비되어진 연주. 영국 음악애호가들에게 빨리 나가서 구입할 것을 재촉한다.

2005년 5월 이달의 저가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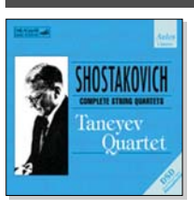
Naxos 8.553007

19세기 기타 애청곡: 소르, 아구아도, 타레가의 기타 독주곡들

노버트 크래프트(guitar)

수년 동안 뛰어난 기타연주, 섬세한 해석, 우수한 취향에 대한 유산으로 길이 남을만한 음반. 무인도에 들고 갈 단 하나의 음반.

2005년 6월 이달의 음반



AMC2-055-1~6(6CDs)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집

타네예프 현악사중주단

작곡가의 현악사중주 전곡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해석 중의 하나. 여러모로 컬렉터들에게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6월 이달의 저가음반

LPO 0002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 수수께끼변주곡
브리튼: Our Hunting Father

히데 하퍼(sop),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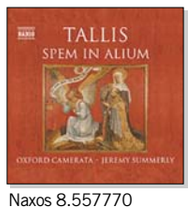
엘가와 브리튼 애호가라면 이 음반을 놓치지 마시라. 하퍼와 하이팅크는 브리튼의 초기 작품에 폭약을 부어넣었다.

Naxos 8.110897-98

엥겔베르트 훔퍼팅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엘리자베스 그뤼머(헨젤),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그레텔), 엘제 쉬르호프(마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놓칠 수 없는 염가발매. 이 역사적인 명연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Naxos 8.557770

토마스 탈리스: 스펨 인 알리움 외 종교합창곡들

옥스퍼드 카메라타, 제레미 섬머리

진정한 승리자. 이 음반을 구입하시라. 영적인 체험을 하게될 것이다.

2005년 7월 이달의 음반

MDG 603 1313-2

안톤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실내악 편곡)

토마스 크리스티안 앙상블

항상 즐거움을 안겨줬던 MDG 레이블이 정성껏 준비한 또 하나의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음반.

2005년 7월 이달의 저가음반

Naxos 8.111083-85

샤를르 구노: 오페라〈파우스트〉

유시 비욜링(파우스트), 체사레 시에피(메피스토펠레), 도로시 키르스텐(마르게리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파우스토 클레바

비욜링의 아리아들을 담은 부록만으로도 돈 값을 충분히 하는 음반. 오페라 역시 구입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2005년 9월 이달의 음반

Naxos 8.557340

노트르담 성당의 종교음악들: 레오넹, 페로텡의 오르가눔들

토누스 페레그리누스, 안소니 피트

초기 다성음악과 함께하는 놀랄만한 70분.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장 나가서 구입하라.

2005년 10월 이달의 음반

Naxos 8.557481

쿠르트 바일: 교향곡 1번, 2번, 어둠 속의 여인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

당신이 쿠르트 바일의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음반을 꼭 들어볼 것을 간청한다.

2005년 10월 이달의 저가음반

Naxos 8.557723

루드비히 반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5번 '유령', 6번

자리온 트리오

의심의 여지없는 나의 이달의 음반. 장대하게 연주되었고, 우수하게 녹음되었다.

Naxos 8.557641

아서 블리스: 발레 〈체크메이트〉, 믈레 판타스크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스코틀랜드의 연주자들은 음악의 정곡을 제대로 포착해내었다. 깨끗하고 밝은 녹음 역시 낙소스 최고의 수준.

Naxos 8.557429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2번, 헝가리춤곡 발췌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

여기 작곡가에 속한 영광이 알소프의 손에 의해 사랑스럽게 재창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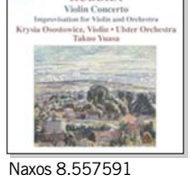
Naxos 8.559268

엘렌 타페 즈윌리치: 바이올린협주곡, 전례

파멜라 프랑크(vn), 자르브뤼헨 방송교향악단, 마이클 스턴

특별히 바이올린협주곡을 추천한다. 작품에 고결함을 부여한 연주.

2005년 11월 이달의 음반



Naxos 8.557591

에드문트 러브라: 바이올린협주곡,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즉흥연주

크리시아 오소스토비츠(vn), 얼스터 오케스트라, 타쿠오 유아사

이 작곡가의 다른 음악과 이 연주자의 다른 음반들을 찾게끔 만든 디스크. 당신의 컬렉션에 꼭 추가하길...

2005년 12월 이달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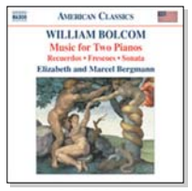
MDG 307 1359-2

라벨: 현악사중주, 타이유페르: 현악사중주, 미요: 현악사중주 4번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모든 애호가들에게 진심으로 이 음반을 추천한다. 멋진 레퍼토리에 뛰어난 연주가 더해졌다.

2005년 12월 이달의 저가음반



Naxos 8.559244

윌리엄 발컴: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엘리자베스 & 마르셀 버그만(pf)

낙소스는 마술사의 끝없이 이어지는 손수건처럼 소매 속에서 이 작곡가의 보물들을 연이어 토해낸다. 앞으로도 이 마법이 계속 이어지길....

Naxos 8.557198

벤자민 브리튼: 바이올린협주곡, 캐나다의 축제

로레인 맥애슬랜(vn), 잉글리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스튜어드 베드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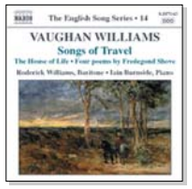
다시 음반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우수한 연주를 구입해도 좋을 것이다. 맥애슬랜은 확신에 차면서도 균형잡힌 연주를 들려준다.

Naxos 8.555994

비톨드 루토스와브스키: 20개의 폴란드 크리스마스 캐럴, 라크리모사

올가 파스치닉(Sop), 폴란드 방송합창단, 폴란드 국립 방송교향악단, 안토니 비트

한겨울의 빛나는 밤을 기쁘게 만들어줄 음반.



Naxos 8.557643

랄프 본윌리엄스: 여행의 노래, 삶의 집, 린덴 리아, 4개의 시

로데릭 윌리엄스(Bar), 이안 번사이드(pf)

본윌리엄스의 초기 가곡에 대한 가장 우수한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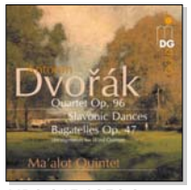
Naxos 8.557460-62

헤토르 빌라로보스: 바키아나스 브라질레이라스 전곡

내시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케네스 셔머혼

음반시장은 이 음반을 향해 환호를 내질렀다. 강력 추천한다. 작고한 셔머혼을 추모하는 의미심장한 음반.

2005년 1월 이달의 음반



MDG 345 1356-2

안톤 드보르작:
슬라브 춤곡(목관오중주 편곡), 현악사중주 Op.96(목관오중주 편곡)

마알롯 목관오중주단

이례적으로 교묘하면서도 대단히 숙련된 편곡. 이 놀라운 그룹의 다섯 멤버들이 보여주는 최정상급 연주.

Naxos 8.557827

들리브, 푸치니, 구노, 캉틀루브, 빌라로보스 외: 소프라노 아리아집

안나 마리아 마르티네즈(Sop), 프라하 필하모니아/ 스티븐 머큐리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신선한 소프라노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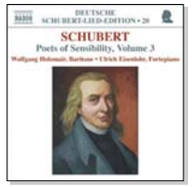
2006년 1월 이달의 저가음반

Naxos 8.557638

페르디난트 리스: 피아노 협주곡집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베 그로트

뛰어난 음반. 최소의 비용으로 희귀레퍼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낙소스의 미덕이 잘 발휘된 음반.



Naxos 8.557568

프란츠 슈베르트: 감수성의 시들에 의한 가곡들 2집

볼프강 홀츠마이어(Bar), 울리히 아이젠로어(fp)

홀츠마이어의 서정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경험하게 되는 음반. 지금까지 낙소스 슈베르트 시리즈 중의 최고의 음반.

2000년 2월 이달의 음반

MDG 603 1320-2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4번(실내악 편곡)

크리스티나 윌체(Sop), 토마스 크리스티안 앙상블

편곡의 논리와 원곡의 영광스러움을 가장 근접하게 포착한 음반.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연주.

Proprius PRSACD 9086

오토 올손: 레퀴엠

실비아 린덴스트랜드(Sop), 잉예 블롬(Ms), 비요른 하우간(Te), 올레 스륄드(Bass), 스톡홀름 로얄 오페라, 안더스 올손

삶에 낙관적이었던 젊은 시절 작곡가의 음악. 선율의 아름다움이 각별하다.

Marco Polo 8.225283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작품전집 7집

칠리나 슬로바키아 신포니에타, 에른스트 메르첸도르퍼

이 시리즈는 새로운 레벨의 경험을 안겨준다.

2006년 2월 이달의 저가음반

윌리엄 올윈: 교향곡 4번, 현을 위한 신포니에타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올윈의 새로운 지지자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 기운찬 연주. 녹음도 훌륭하다.

Naxos 8.557649

디트리히 북스테후데: 7개의 트리오소나타 Op.2

존 할러웨이(vn), 얍 테르 린덴(vc), 라스 울릭 모르텐센(cemb)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체임버 뮤직이 훌륭히 연주되었다. 주목할 만한 염가음반.

Naxos 8.557249

에드워드 엘가: 코케인서곡, 위풍당당행진곡, 수수께끼변주곡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드워드 엘가

이 낙소스 CD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있을 수 없다.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음반.

Naxos 8.111022

보 린데: 바이올린협주곡, 첼로협주곡

카렌 고묘(vn), 마리아 크리겔(vc), 게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페터 순트크비스트

관능적인 서정성과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가득한 두 개의 로맨틱-드라마틱 협주곡. 신고전주의자 린데의 놓칠 수 없는 음반.

Naxos 8.557855

2006년 3월 이달의 음반

니콜로 파가니니: 기타작품집

마르코 타마요(guitar)

파가니니의 기타 독주곡을 담은 음반 중 이보다 더 뛰어난 음반은 없다.

Naxos 8.557598

2006년 3월 이달의 저가음반

조지 프레데릭 헨델: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아라디아 앙상블, 케빈 말론

시종일관 승리자. 헨델의 음악에 대한 화려한 연출.

Naxos 8.557764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 요정의 입맞춤

디아나 몬타그(Sop), 로빈 레가테(Te), 바크 비즐리(Bass),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버트 크래프트

주저할 것 없이 추천하게 되는 음반. 컬렉터들은 스트라빈스키/크래프트 시리즈를 자신의 CD장에 반드시 추가해야할 것이다.

Naxos 8.557503

2006년 4월 이달의 음반

아스예르 하머릭: 코랄심포니, 레퀴엠

랜디 스테네(Ms), 덴마크 방송합창단,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토마스 다우스고르

두 개의 충격적인 합창-관현악 작품들. 대단히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작품들이다.

Dacapo 8.226033

2006년 4월 이달의 저가음반

윌리엄 발컴: 바이올린소나타 전집

솔로미아 소로카(vn), 아서 그린(pf)

무궁무진하게 다양하면서 강력한 시리즈.

Naxos 8.559150

윤이상: 체임버심포니, 공후

박라나(harp), 한국 바로크 앙상블, 피오트르 보르코프스키

아직 윤이상의 작품을 접해보지 못했다면 이 음반을 통해 시도해보라. 작품과 연주 모든 면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Naxos 8.557938

2006년 5월 이달의 음반

페르 뇌르고르: 하프를 위한 작품들

티네 레흘링(harp), 에스비에리 앙상블, 카이사 로제

훌륭히 연주된 탁월한 디스크. 작곡가의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이 음반을 통해 하프라는 악기의 다양한 향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Dacapo 8.226039

2006년 6월 이달의 음반

니콜로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색소폰 편곡)

라프 헤케마(sax)

2006년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음반은 단연코 나의 올해의 음반이다.

MDG 619 1379-2

2006년 6월 이달의 저가음반

루치아노 베리오: 세쿠엔차 전곡

여러 연주자들

34년의 긴 음악여정에 대한 빛나는 해석. 20세기 기악음악의 최고봉으로 남아있을 작품.

Naxos 8.557661-63

막스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1번, 콘체르트스튁

막심 페도토프(vn),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훌륭하게 연주되고 녹음되어진 레코드. 상당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음반.

Naxos 8.557689

네드 로렘: 플루트협주곡, 바이올린협주곡

제프리 카너(fl), 필립 퀸트(vn),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세 세레브리에르

그냥 옆에 있는 당장구입 버튼을 누르면 된다.

Naxos 8.559278

힐리 윌란: 찬송가와 모테트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노엘 에디슨

더 많은 윌란의 작품을 찾게 만드는 구미를 돋우는 에피타이저.

Naxos 8.557734

뉴 에이지 거장들의 아낌없는 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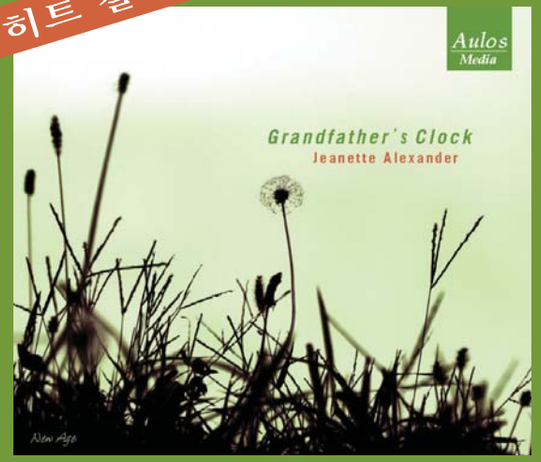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작곡법과 유려한 멜로디, 그리고 완벽한 분위기의 로망스다!"
– 데이비드 렌즈(David Lanz)

"내 영혼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그녀의 음악은 정말 아름답다!"
– 마이클 호페(Michael Hoppe)

뉴 에이지의 여신

자넷 알렉산더

베스트 히트 컬렉션



AMC2-069

한 폭의 수채화, 한 편의 서정시 같은 음악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시계를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야릇한 슬픔으로 노래한
타이틀곡 **'할아버지 시계'**를 비롯해, 아련한 오보에 선율이
너무도 아름다운 **'함께 느끼는 것(Common Ground)'**은
국내 포스코 CF에도 사용되어 이미 유명한 곡.
가슴 뭉클한 12가지 보석 선율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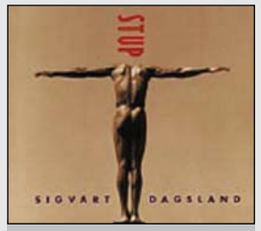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스팅

시그바르 닥슬란 Sigvart Dagsland

노르웨이에서 가장 인기 높은 가수 중의 한사람인 시그바르 닥슬란은 1963년 스타방게르(Stavanger)에서 태어났다. 그는 피아노도 연주하고 작곡도 한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잘해서 고향 스타방게르의 교회 합창단에서는 보이 소프라노로 활동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의 스팅으로 불리는 그가 작곡하고 노래하는 음악들은 대체로 선율적인 아름다움을 위주로 한 팝-록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노래에는 북유럽 특유의 우수를 담겨 있고, 서정이 진하게 묻어 있다. 그의 선율은 대체로 풍요로운 느낌, 그리고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을 준다. 1985년부터 많은 소울 발라드, 가스펠 송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10여개의 음반을 냈으며, 매년 약 40여 차례 공연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높은 인기의 비결은 간단하다. 록 발라드 스타일이지만 매우 진지한 가사와 음악성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깊이 울려주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대개 키보드, 드럼,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가 어우러진다. 그리고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합창단이 백 코러스로 때로는 은은하게 때로는 극적으로 아주 독특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합창의 효과를 살려 자신의 음악을 빛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대부분 히트 음반들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을 앨범이라면 〈펼쳐진 하나님 손의 권능〉이란 앨범이 아닐까 싶다. 처절하고 집요한 기타 선율, 장엄한 교회 오르간이 함께 어우러져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줬기 때문이다. 또 각 트랙의 음악들이 모두 훌륭한, 이른바 베스트 넘버만 담은 라이브(Laiv)란 음반도 고전음악과 거룩한 종교음악의 만남으로 성취된 감동의 현장이다. 한마디로 "맑고 잔잔하고 장엄한"음반이다. 유명한 가수인 카롤리네 크뤼거는 닥슬란의 부인이다.

시그바르 닥슬란의 발매 음반들...



FXCD 141

Sigvart Dagsland : stup

FXCD 157

Sigvart Dagsland : det er makt i de foldede h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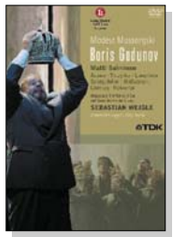
FXCD 173

Sigvart Dagsland : laiv

FXCD 244

Sigvart Dagsland : favoritter

TDK DVD



TDK DVWW-OPBORIS

무소르그스키: 보리스 고두노프

무소르그스키의 초판본으로 체험하는 암울한 러시아 역사

〈보리스 고두노프〉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러시아를 통치했던 실존인물의 얘기를 다룬 알렉산더 푸쉬킨의 비극을 오페라로 만든 것이다. 무소르크스키는 의도적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의 음악적 어법을 회피하고 러시아의 흙냄새를 투영했다. 작곡자 자신의 개정판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편곡판도 있지만 원작의 원초적 힘을 체험하려면 오리지날 초판본으로 감상해야 한다. 본 영상물은 2004년 가을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가극장 실황으로, 1869년 초판본을 사용했다. '국왕 역의 전문가수' 란 별명을 갖고 있는 핀란드의 위대한 베이스 마티 살미넨이 타이틀 롤을 맡았으며 알버트 샤기둘린, 아나톨리 코로체가 등 러시아 본토의 명가수들이 합세했다. 리세우 가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첫 시즌을 맞이한 세바스찬 바이글의 예민한 지휘가 돋보이며, 최고의 오페라 연출가로 각광받고 있는 빌리 데커가 권좌를 상징하는 거대한 의자와 살해당한 드미트리 황태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 세상에 편재하는 보편적 심리극으로 재창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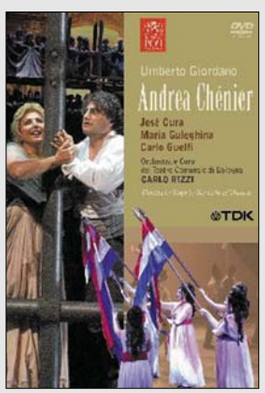
TDK DVWW-COWNAD6

슈베르트: 교향곡 8,9번

NDR 심포니 오케스트라, 귄터 반트

1995년 슐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 실황.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물은 뤼벡 에서 개최되는 슐 1995년(슈베르트 8,9번)의 기록들이다. 후기의 영상으로 옮겨갈수록 거장의 육체적 노화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나, 악단 전체를 휘어잡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나이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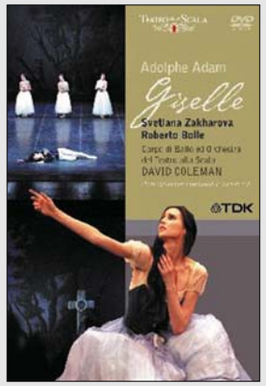


TDK DVWW-OPACH

지오다노: 안드레아 셰니에

이 오페라의 난제를 풀어낸 꿈결 같은 결정판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셰니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실존 시인의 얘기를 다룬 베리즈모 오페라 시대의 걸작이다. 특히 세 주역가수의 노래가 대단히 격정적이고 감동적이어서 최고의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을 모을 수 있다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소개하는 2006년 1월의 볼로냐 오페라 실황에서 그 꿈을 이루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드라마티코를 대표하는 호세 쿠라(셰니에)와 마리아 굴레기나(마달레나), 그리고 단단하기 그지없는 바리톤 카를로 구엘피(제라르)라는 환상적인 트로이카를 구현한 것이다. 또한 20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들이자 전통적인 오페라 연출에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잔카를로 델 모나코가 전체 연출은 물론 의상까지 도맡아 혁명 시대의 프랑스를 깊이 있게 묘사하는데 성공했다.



TDK DVWW-OPCFTSF

아당 : 지젤

현역 최고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지젤〉을 춤추다

현재 볼쇼이 발레의 프리마돈나로 활약하고 있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현역 최고의 발레리나 중 한사람이다. 특히 유별나게 긴 팔과 긴 다리를 지니고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체형을 지닌 발레리나로 꼽히기도 한다. 자하로바는 2005년 10월의 볼쇼이 발레 내한 공연에서도 바로 이 〈지젤〉로 당시 세종문화회관에 모인 한국 발레 팬들의 넋을 빼놓은 바 있다. 19세기 낭만 발레의 대표작인 〈지젤〉은 사랑하던 남자에게 배신당해 안타깝게 죽은 지젤의 영령이 옛 연인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영령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본 영상물은 2005년 4월 밀라노 라 스칼라 발레의 최신 실황이며, 알렉산더 브누아의 전설적인 세트를 재현한 무대는 기절할 정도로 아름답다. 자하로바의 상대역으로는 유럽 발레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탈리아의 미남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가 출연했다.

[추가자료]

○ 1979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마린스키(키로프) 발레단에 입단하여 불과 18세의 나이(1997년)로 수석 무용수가 되었다. 마린스키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후에 2003년 여름 볼쇼이 발레로 이적하여 〈파라오의 딸〉의 리바이벌 공연을 비롯, 볼쇼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볼쇼이 발레단에 묶여있지 않고 서구의 여러 발레단에 활발한 객원 출연도 병행하고 있다.

○ 자하로바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찾는 서구 발레단이 밀라노의 라 스칼라 발레다. 이 발레단은 이탈리아의 예술적 감각을 과시라도 하듯 무대 장치와 의상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에 힘입어 발레단 전체의 평판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마시모 무루, 로베르토 볼레라는 두 명의 남성 무용수야말로 이 발레단이 자랑하는 간판스타로서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 라 스칼라 발레는 전통적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왔다. 주로 무대와 의상에 관한 노우하우를 라 스칼라가 제공하고 무용 프로덕션은 파리 오페라 발레의 것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본 영상물의 〈지젤〉도 쥘 페로와 장 코라이의 오리지널 안무를 파리 오페라 발레의 이베트 쇼비레와 플로랑 클러크가 수정한 프로덕션을 기본으로 하되, 라 스칼라의 안젤로 살라와 친치아 로셀리가 다시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다만 무대 세트와 의상은 20새기 초의 전설적인 무대미술가였던 알렉산드르 브누아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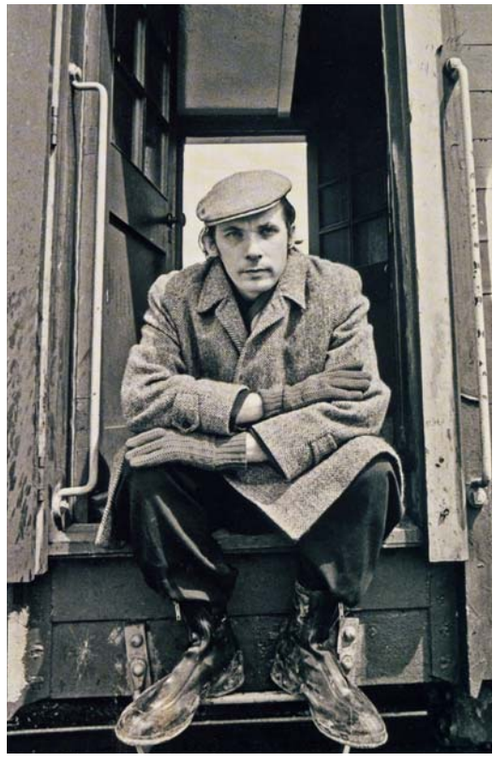
Giselle

학수고대하던 글렌 굴드 다큐멘터리 드디어 출시!!...브루노 몽생종 필름

글렌 굴드 Glenn Gould | Hereafter(이 시간 너머로)

2006년 피파 도르상에 빛나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파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작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름 제작자로 최고의 명성을 얻은 브루노 몽생종이 2005년에 선보인 글렌 굴드 다큐멘터리 필름 〈이 시간 너머로〉가 드디어 DVD로 출시되었다! 〈예후디 메뉴인 금세기의 바이올린〉, 〈리흐테르 수수께끼〉 등의 영상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 몽생종. 그는 굴드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이미 글렌 굴드에 관한 책을 네 권이나 썼고, 23 에피소드 텔레비전 시리즈도 만든 바 있는 글렌 굴드 최고의 전문가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 예고된 관련 자료를 접했던 애호가들은 이 굴드 다큐멘터리를 몹시 학수고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굴드의 친구로 그에 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던 몽생종에게 또 무슨 글렌 굴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인가? 몽생종도 제의를 받고 처음엔 잠시 주저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 제작사 Ideale Audience와 가진 인터뷰에서 "굴드에 관한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아닌, 뭔가 정말 독창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야 했다."고 말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작업을 했음을 과시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통찰과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으로서의 다큐멘터리였다는 것이다. 아마 모든 것에 통달한 수준에 이른 전문가만이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출구라는 생각인데, 그 결과 깊은 명상과 증언, 아주 높은 수준의 영감으로 빚어진 영상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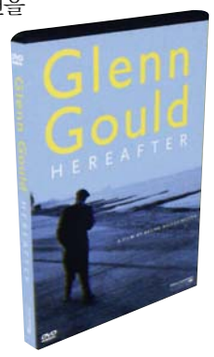
몽생종은 이번 필름을 만들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첫째는 글렌 굴드가 스스로 자신의 필름을 안내하는 내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저작물과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굴드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세밀하게 스케치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까지도 깊은 통찰로 보여준다. 굴드의 내면 곳곳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었던 몽생종이 아니면 구현할 수 없었던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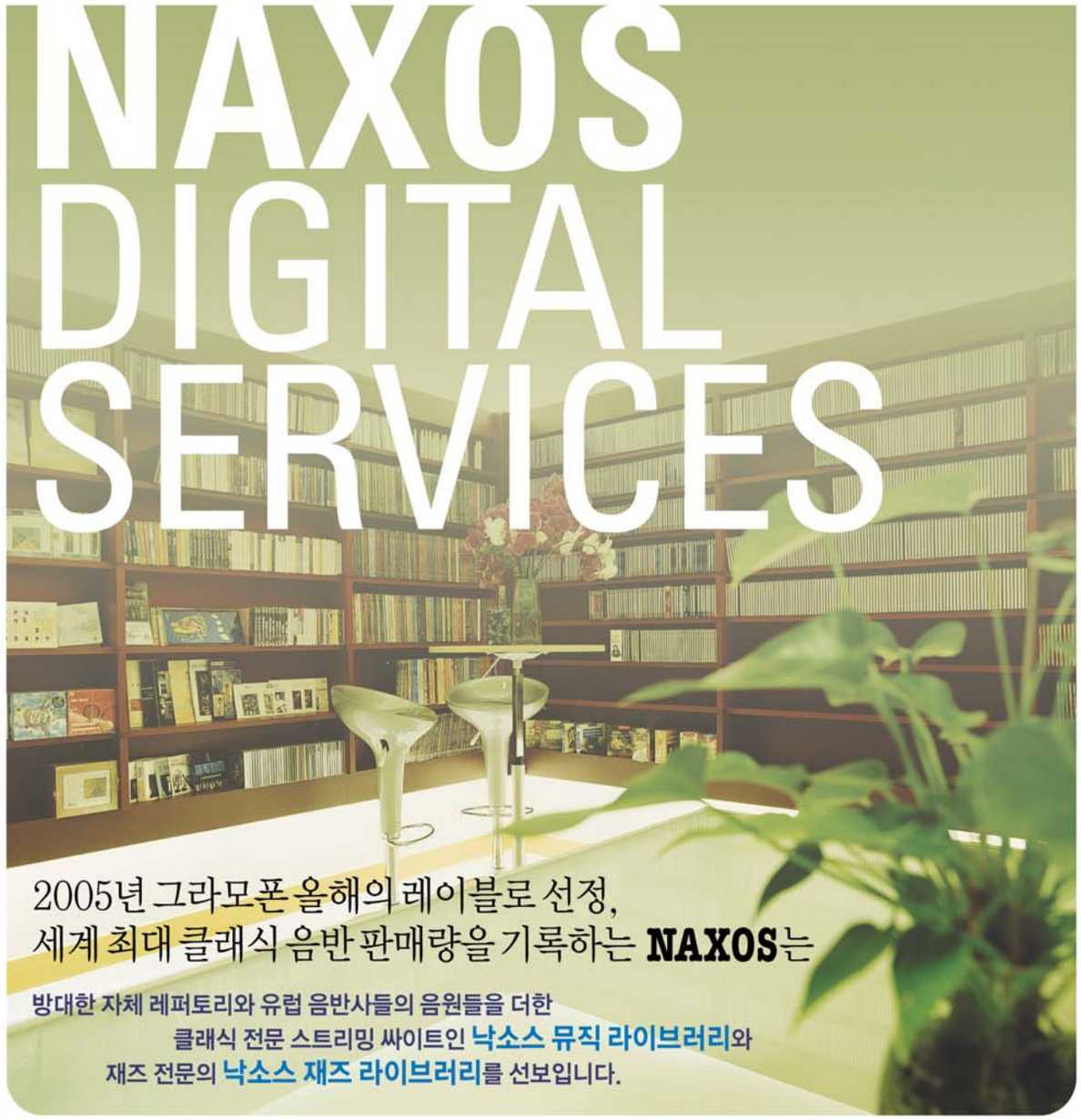
둘째로는 굴드의 음악에 매료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그의 음악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출연시켜 굴드라는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 연주가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점은 굴드의 연주를 하나의 기이한 현상 혹은 지나치게 평가절하해서 하나의 해프닝쯤으로 치부하려는 일각의 애호가나 전문가들의 입을 무겁게 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존경하는 구스타프 레온하르트가 그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내외했던 사실을 기억해보자. 그런데 레온하르트의 의중은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주위의 많은 전문가나 애호가를 보면, 사실 그의 연주에 아주 독특한 형태의 반응을 보이는 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그의 연주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꾸만 그의 연주에 끌린다고 호소한다는 점이다. 그 예로 이 DVD에서 끌어내라고 한다면 필자는 모차르트의 소나타와 브람스의 인터메초 같은 음악을 꼽을 것 같다. 일견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을 굴드는 참으로 감동적인 깊이의 연주를 들려준다. 그의 보편성은 레퍼토리에서도 증명된다. 바로크 음악에서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는 참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 보편적인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굴드 하면 바로 떠오르는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리허설 포함)을 위시하여, 오르간을 위한 푸가, 칸타타 BWV54, 푸가의 예술, 영국 모음곡이 흐르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피아노 협주곡 1번, 에로이카 변주곡, 소나타 Op.10, No.2, 모차르트의 환상곡과 푸가 K.394, 소나타 K.331, 쇼팽의 에튀드 Op.10 No.2, 브람스의 인터메초 Op.117 No.2, 베버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멘델스존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힌데미트의 소나타, 그리고 기번스, 스카를라티의 음악도 있다. 슈베르트 교향곡 5번은 물론 글렌 굴드 자신의 피아노 편곡 연주로 , 쇼팽 주제에 의한 즉흥곡 같은 글렌 굴드 자신의 작품도 연주한다. 이 곳 레퍼토리만으로도 확실히 그가 특이하지 않고 보편적인 피아니스트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세 번째로 몽생종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동영상이나 사진 컷들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실을 많이 뒤졌다는 점이다. 2006년 피파(Fipa) 상 음악 및 스펙터클 부문에서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던 영상물인 점을 상기해보라. 다양한 소스에서 얻어낸 영상들이 아주 신기할 정도로 풍부하여 시각적인 구미도 충분히 돋운다. 지금까지 나온 글렌 굴드의 자료들, 열권이 넘는 책, 에세이집, 그리고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기타 영상물을 모두 본 사람일지라도 신기하게 느낄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아주 많다. "또 글렌 굴드야?" 하는 사람은 없고, "글렌 굴드가 이런 면도 있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몽생종은 굴드를 절대로 평범한 연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굴드를 '마지막 퓨리턴'이라고 부르며 기행을 일삼는 분방한 인물로 보려는 시각은 애초에 차단해버린다. 굴드가 사실은 엄격한 순수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가끔 오해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천재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도달하는 초월세계와는 다른, 어떤 독특한 감성의 세계를 응시하며 연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몽생종은 영상물을 통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필름의 제목(필자는 프랑스어 제목 'Au dela du Temps'이 더 좋아 그것을 번역했다)도 그런 생각에서 붙여진 것처럼 보인다. 몽생종의 이 놀라운 통찰은 그의 연주에 어정쩡하게 한발을 들여놓았던 혹은 잠깐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을 모두 돌려세운다. 106분. 보고 나면 명화 한 편을 깊은 감동으로 감상한 느낌이다. 연주 장면, 인터뷰 장면 외에 해변을 거니는 굴드의 모습이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펼쳐지는 천국처럼 아름다운 풍광 등 매혹적인 영상은 정말 꿈결 같다. 글렌 굴드의 모습을 새롭게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창을 마련해준 아주 유익한 영상물이다. (이성일)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싸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 · 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컨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 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태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NAXOS Music Library · NAXOS Music Library Jazz · NAXOS Spoken Word Library · NAXOS Web Radio · Naxos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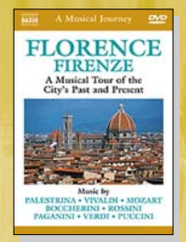
A Musical Journey

여·행·자·시·리·즈

세계 음악도시 가장 저렴한 경비로 갔다 오는 방법
폭발적인 인기...

Florence *Norway*
Salzburg *Scot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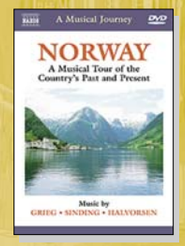
Naxos 2.110513



A Musical Journey
피렌체
Florence

평온한 피렌체 저녁 분위기 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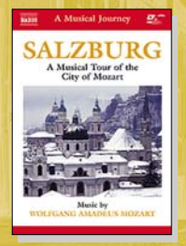
Naxos 2.110515



A Musical Journey
노르웨이
Norway

대작곡가 그리그의 나라, 북구 전원 풍경 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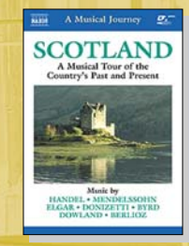
Naxos 2.110517



A Musical Journey
잘츠부르크
Salz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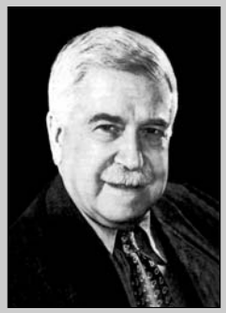
아! 모차르트의 고향,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

Naxos 2.110519



A Musical Journey
스코틀랜드
Scotland

풍경화가 멘델스존이 깊은 감명을 받았던 곳!



표지사진 : 아르투르 슈나벨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8월호
통권 제 14호 발행 : 2006년 7월 24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